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0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21일(음 3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나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삼점 삼점이 간판을 가진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간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교 그대로 생명이자 영원한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또는 불교다, 종파가 다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그달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자유스러운 삶도 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이 도리를 알아야 생활 불교이고, 생활이 즉 참선이고 좌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입니다. 이 하나하나 발자취 걸어다니는 것도 바로 한도량미의 한발인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공부를 해야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지 그것도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을 증득하라. 여러분 각자 사랍부터 돼라. 부드러워라. 폭을 넓혀라." 하고 설하셨습니다. "폭을 넓혀라" 그 소리는 "지혜로워라" 하는 소립니다. "지혜로워라. 모든 것을 너의 소견으로만 살피 말고 남의 소견에 서서 좀 양보할 줄 알고 좀더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아라. 과거에 살던 그 모두의 인연 소치들이 네 몸에 잔뜩 모여서 지금 고(苦)덩어리가 돼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덩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체내에는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의식들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학술적인 의학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학이 돼야 하고 우리 생활도 정신적인 생활이 돼야 하고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이 돼야 하고, 모든 게 정신적인 데서만이 현실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전부 두루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한 구석에서, 아니 지구 한 항아리만큼 항아리 안에서 살기도 뭐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또는 내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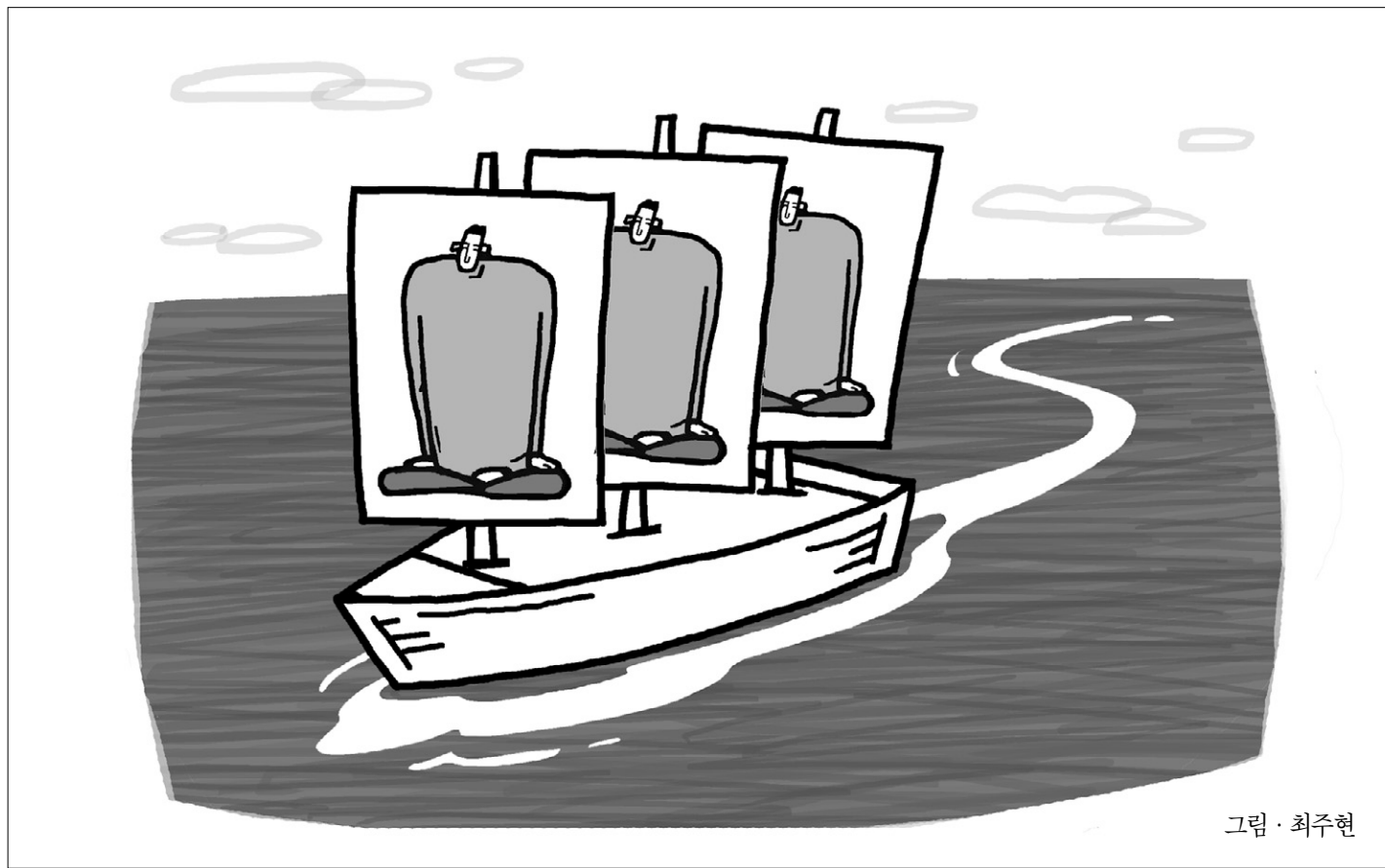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안에서도 나를 못 끌고 간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체내에 있는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으나?" 하시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으나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거기서 약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그러는 반면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과로 만난 인연들은 그 속에서 먼저 가서 안되게 하고, 벌써 여러분이 될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방해해 놓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가면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미래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은 미래에서 볼 땐 과거라고 볼 수 있겠소.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自神)'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것이 다 들락거리고, 세균성 영계

성 또는 업보성 유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빈집이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온갖 것을 다 파괴를 시키고 이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노예 생활이라 이 소립니다.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가 어디나?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고 거슬러 내려갈 것도 없죠. 여러분이 난 것이 바로 태초요 여러분 몸이 이 세상에 생긴 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면 화두를 떠 떼 가서 찾았다면, 떠 떼서 받는다면 그건 부처님 당시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후에 너무 선택이 미약해지고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약해지니까 큰스님들께서 화두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되고 일과가 돼 가지고 항상 '이게 뭐고?' 이겁니다. 뭐긴 뭐니까? 이 세상

에 난 것이 여러분 공한 그 몸품이, 그 자체 속에 중생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바로 육성덩어리죠. 의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던 내 조상 부(父)와 지금 현재에 사는 자(子)와 상봉을 해야만이 스스로 의정이 터지고 스스로 의정이 나고 스스로 '그 뭇고' 가 돼서 '세상의 그 입자가, 원자에서 입자가 화해서, 수만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이 떨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는지! 이게 무엇일꼬?' 하고 그 의정이 터지는 거지 남이 줘서 의정을 가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의정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여러분 대신 통 주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자 주는 사람 없죠? 아무리 친절해도! 먹여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죽여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걸어갑니다. 내 몸품이도 내가 갈 때,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더울 때 시원한 옷 입히고 추울 때 더운 옷 입히고 만지고 씻고 바르고 이렇게 해 줘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무리 많고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좇아가지

돈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좇아다닙니까?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또는 자식과 부부기간도 배웅이나 가면 갔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누가 갈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주인공은 여러분을 형성시켰고 형성시킨 사대가 흩어질 때는 바로 주인공과 같이 아늑한 한마음 한 행동, 바로 공식(共食)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미래세계에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미래의 세계에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만 허공에서 떠돌거나 착이 있어서, 습이 있어서, 아집 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그 집 언저리에서 뱅뱅, 자기 아는 대로만 거기에서 돌다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습을 띤 꼴로 태어나는 수가 많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또 인간으로 세 번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악도 놓고 선도 낚라.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기 때문에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 불바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삼천 년 전에도 불바퀴를 말씀하셨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말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삼천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삼천 년 전만 아니죠. 단군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81자를 남겨 놔습니다. 인간이 왜 뒤쳐져서 맨 나중에 나왔느냐고 하신다면, 수많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다른 거는 다 빨리빨리 컸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그것이 커서 진화되면서 인간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인간이 됐다 합니다.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바로 인간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저 수박 겉핥듯...

보세요! 작년 수박지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수박이 싹이 났습니다. 싹으로 화했다 말입니다. 싹으로 화했는데 그 씨를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예? 바로 그 씨가 화해서 싹으로 났기 때문에 그 싹이 수박을 또 열리게 해 가지고 그 수박이 바로 씨를 낳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싹으로 나서 이렇게 여러 해 사시고 어른이 됐으니 수박은 벌써 무르익었다 이겁니다. 그대로 부처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말로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을 알아야 부처인지 부처가

26면으로 계속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대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시찰,범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범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범당 앰프

PWA-110 320x230x270mm...8.5kg

PWA-730 430x275x275mm...4kg

PWA-3000 200x480x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TWIN MEDIA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기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사찰 CCTV 설치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